

음식물 퇴비화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이 무 춘(상명여대 환경녹지학과 교수)

정 재 춘(연세대 환경과학과 교수)

I. 서론

근래에 이룩한 고도 경제성장은 폐기물을 다량 발생하게 하였고 이는 원래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Nimby현상으로 신매립지 건설은 어려워지고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어 감량화와 재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특히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승부, 1994).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 쓰레기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행정당국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최근들어 여러 가지 정책적 대응을 세우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 단계로서 미흡한 상태이다(강승원, 1993).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시책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는 식품 소비형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근원적으로 감량화와 재활용을 위해서 소비생활양식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퇴비화에 대한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음식물 퇴비화 증진 정책과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설문조사 대상 지역의 주민

가정과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과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에 대한 주민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1994년 3월 10일에서 3월 31일까지 아래의 조사지역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1) 서울특별시
- 2) 강 원 도 : 강릉시, 정선군
- 3) 경 기 도 : 안양시, 문산읍
- 4) 전 라 북 도 : 군산시
- 5) 경 상 북 도 : 봉화군

따라서 조사대상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였고, 또한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수입, 주거형태별로 세분화 하였다.

총 895명분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는 888건이었다.

2. 설문의 조사영역

설문의 조사영역은 다음과 같다.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 발생량과 종류

- 음식물쓰레기 발생원인
-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 음식물쓰레기의 문제점
- 음식물쓰레기의 문제점의 해결방안
-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 음식물 퇴비통의 설치
- 음식물 퇴비화에 대한 홍보자료

3. 조사방법

설문조사 방법은 사례조사 지역의 주민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일부는(음식점의 경우) 직접 방문을 통해 면접조사 하였으나, 대부분은 설문지를 발송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설문조사의 추출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의 현황분석

- (1)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수입별, 주거 형태별 응답자의 현황,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도는 <표 1>에서 나타났듯이 중소도시의 분포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도시, 읍면지역 순위로서 조사대상 지역의 분포는 그리 편중되어 있지 않다.

<표 1>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도

대상지역	회수건	회수율(%)	비 고
대 도시	327	36.8	
중소도시	365	41.1	
읍면지역	196	22.1	
합 계	886	100.0	

응답자의 성별 분포도에 따르면 여자의 참여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표 2> 응답자의 성별 분포도

	회수건	회수율(%)	비 고
여 자	666	80	
남 자	167	20	

조사참여도의 연령별 분포도는 <표 3>과 같으며, 20대, 30대와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3>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도

	회수건	분포율(%)	비 고
10 대	37	4.4	
20 대	221	26.0	
30 대	278	32.7	
40 대	228	26.8	
50 대	66	7.8	
60대 이상	20	2.3	
합 계	850	100	

설문지 작성주민의 학력과 직업별 분포도는 다음 <표 4>와 <표 5>와 같다.

<표 4> 응답자의 학력 분포도

	회수건	회수율(%)	비 고
국 졸	25	3.0	
중 졸	131	15.8	
고 졸	443	53.2	
대 중 퇴	28	3.4	
대 졸	205	24.6	
합 계	832	100	

조사된 음식점은 대부분(78.6%)이 한식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음식점 종업원 수는 절반이상(53.6%)이 2명이였다.

설문지에 참여한 주민이 월평균 수입은 <표

〈표 5〉 응답자의 직업별 분포도

	회수건	회수율(%)	비 고
주 부	119	14.9	
전문관리자	178	22.3	
사 무 직	176	22.0	
판매서비스	161	20.1	
생산단순노무자	51	6.4	
농림수산부	43	5.4	
학 생	15	1.9	
무 직	8	1.0	
음 식 점	14	1.7	
기 타	34	4.3	
합 계	799		

6)과 같이 조사되었고 100~150만원이 38.1%, 150~200만원이 20.1%로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상위(58.2%)하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응답자는 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의 주거형태 조사분석 〈표 7〉에서 나타났다.

〈표 6〉 응답자의 수입별 분포도

수입(만원)	응답자수(명)	구성비(%)
50 이하	44	5.4
50-100	144	17.6
100-150	312	38.1
150-200	165	20.1
200-300	93	11.4
300 이상	61	7.4
합 계	819	100.0

〈표 7〉 응답자의 주거형태 분포도

수입(만원)	응답자수(명)	구성비(%)
단 독	316	37.6
아 파 트	322	38.4
연립다세대	139	16.5
고급빌라	8	1.0
상 가	55	6.5
합 계	840	100.0

2. 응답결과분석

(1) 음식물 쓰레기 심각성 및 발생량과 종류
 〈표 8〉은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단히 심각하다』가 53.2%, 그리고 『심각하다』가 40.5%로 나타나 대부분의 설문조사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8〉 음식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심 각 성	467	52.2
대단히 심각	355	40.6
심 각	40	4.5
보 통	6	0.7
그저 그렇다	9	1.0
잘 모르겠다	9	1.0
합 계	886	100.0

〈표 9〉에 의하면 응답자의 40.8%가 200~500g(약 2-5컵 정도), 36.8%는 200g이하(약 2컵 이하)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쓰레기 발생은 〈표 10〉이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0.3%가 10kg(약 1양동이)이하, 16.9%가 10~30kg(약 1-3양동이)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표 9〉 가정음식물쓰레기 일일 발생량

발생량	응답자수(명)	구성비(%)
200g	318	36.8
200-500g	353	40.8
500-800g	137	15.8
800-1100g	43	5.0
1100g	14	1.6
합 계	865	

〈표 10〉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일일발생량

발생량	응답자수(명)	구성비(%)
10kg 이하	154	70.3
10 - 30kg	37	16.9
30 - 50kg	17	7.8
50 - 100kg	7	3.2
100kg이상	4	1.8
합 계	219	100.0

가정 주방 쓰레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쓰레기는 음식물의 포장재가 가장 많고(74.5%), 다음으로 채소/야채류(64.7%), 국·찌개(59.6%), 등 순위로 조사되었다(표 11). 이 조사에서 음식물쓰레기와 퇴비를 만드는데 부적당한 음식물 포장재를 함께 섞어 놓으므로서 분리수집하고 있지 않음이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표 11〉 가정 음식물쓰레기의 종류(중복·다답)

쓰레기 종류	응답자수(명)	구성비(%)
밥	145	
빵	15	1.7
채소, 야채	561	64.7
생선, 육류	181	20.9
국, 찌개	517	59.6
음식물의 포장재	646	74.5
1회용품	297	34.3

〈표 12〉 따르면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처리의 미흡한 원인조사에서 주부들의 의식부족이 77.2%로 가장 높고, 처리방법에 대한 교육부족이 57.7%, 퇴비장 설치장소가 없음이 48.7%, 처리방법 및 안내자료 부족이 48.2%로 순위로 각각 나타나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표 12〉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처리가 미흡한 원인(중복·다답)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주부들의 의식 부족	679	16.7
처리방법의 교육 부족	507	57.7
처리방법 및 안내자료 부족	424	48.2
퇴비장 설치장소가 없음	428	48.7
정부 및 단체에서의 계몽 부족	735	42.7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이 적음	104	11.8

〈표 13〉 음식물 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중복·다답)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음식물을 너무 만든다	435	49.9
즉석식품의 소비량이 많아졌다	464	53.3
음식물이 아깝다는 생각이 사라졌다	535	61.4
외식과 손님접대가 많아졌다	128	14.7
음식물의 포장재가 사라졌다	128	49.5
일회용품용량이 늘어났다	543	62.3
기 타	7	0.8

(2)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원인

〈표 13〉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주요 원인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증가』에 62.3%, 『음식물이 아깝다는 생각이 사라진다』에 61.4%, 『즉석식품의 소비량이 많아졌다』에 53.3%, 『음식물을 너무 많이 만든다』에 49.9% 순위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과소비적인 조리상에 나타난 문제라기 보다 즉석식품 일회용을 선호하는 현대 소비양상의 변화에 따른 것이므로 보여졌다.

가정의 외식빈도 〈표 14〉와 음식주문방법을 〈표 15〉을 조사하여 식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과 연관성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2~3개월에 1회 그리고 월 1회 외식을 한다고 하였다. 『외식을 할 때는 음식물을 어떻게 주문합니까』에는 『한꺼번에 넉넉히 한다』가 응답자의 21.2%이므로 대부분은 적절하게 필요한 양만 주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 가정의 외식빈도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일주일 2-3회	32	3.8
일주일 1회	95	11.3
월 2-3회	173	20.5
월 1회	254	30.2
2-3개월에 1회	288	34.2
합 계	842	100.0

〈표 16〉 손님초대시 음식장만(중복·다답)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초대손님 수에 비해 조금 부족하게 직접 만든다	42	3.8
초대손님 수에 비해 넉넉하게 직접 만든다	391	45.4
초대손님 수에 비해 가능한 알방게 직접 만든다	415	48.0
초대손님 수에 따라 일부는 주문 배달해 온다	16	1.9
합 계	864	100.0

〈표 15〉 외식시 음식주문 방법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한꺼번에 넉넉히	181	21.2
조금씩 여러번	436	51.2
조금 부족하게 먹고 끝낸다	235	27.6
합 계	852	100.0

『손님을 초대할 때 음식을 어떻게 만드십니까?』에 대한 설문조사 〈표 16〉에는 『넉넉하게』가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

남은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항 〈표 17〉에서 『기름은 종이로 딱아서 휴지통에 버린다』가 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딱딱한 것은 휴지통에 버린다』가 55.8%로 나타난 반면, 『썩는 것은 따로 모아서 썩혀서 거름으로 사용한다』와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게 준다 및 가축사료용으로 전문처리 업체에게 모아 준다』가 각각 12.7%, 21.4%, 7.8%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 쓰레기는 주로 이용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표 17〉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중복·다답)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대부분 하수도에 버린다	219	25.1
기름은 종이에 닦아서 버린다	718	82.3
딱딱한 것은 휴지통에 버린다	487	55.8
썩는 것은 따로 모아서 썩혀서 거름으로 사용한다	111	12.7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게 준다	187	21.4
가축사료용으로 모으는 사람이나 전문처리업자에게 모아준다	68	7.8

(4)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점

문제점은 부패와 악취등의 위생문제(78.5%)로 지적되었다.

〈표 18〉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가장 큰

〈표 18〉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점(중복·다답)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수거와 운반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396	45.3
매립장 확보나 소각등 처리가 어렵다	585	66.9
부패와 악취등 위생문제가 많다	687	78.5
음식물을 버린다는 도덕적 문제가 있다	297	33.9
귀중한 자원을 낭비한다	452	51.7

(5) 음식물 쓰레기 문제점의 해결 및 저감 방안

%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밥과 반찬을 남기지 말아야 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나 사료로 개발하여 쓰레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정 음식물 쓰레기 문제해결에 대한 조사는 〈표 19〉가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식품의 포장지나 1회용품 줄이기』에 가장 큰 비중(73.7

〈표 19〉 음식물 쓰레기 문제해결방안(중복·다답)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초대손님 수에 비해 조금 부족하게 직접 만든다	589	67.1
초대손님 수에 비해 넉넉하게 직접 만든다	647	73.7
초대손님 수에 비해 가능한 알맞게 직접 만든다	533	60.7
초대손님 수에 따라 일부는 주문 배달해 온다	214	24.4
남은 음식물 쓰레기만 따로 모아서 비료나 사료로 개발하기	558	63.3

〈표 20〉에 따르면 음식물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로서 나무젓가락과 종이수건 앞쓰는 것이 가장 중요(76.8%)하다고 보고 있다.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싸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호의적임(74.4%)이 나타났다. 남은 음식물에 과태료를 손님이 지불하는 것과 추가 반찬에 대한 요금을 내도록 하는 조치에 주민의 호응은 낮은 편이었다.

〈표 20〉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저감방안(중복·다답)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나무 젓가락과 종이 수건 없애기	663	76.8
추가반찬에 대한 요금 지불하기	210	24.3
패스트 후드점의 포장재 줄이기	597	69.2
많이 남긴 음식물에 과태료 물기	361	41.8
남은 음식은 손님의 주문에 따라 싸서 주기	642	74.4

(6)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표 21〉은 조사대상 주민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대한 경험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주민(86.3%) 퇴비를 만들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를 만들어 보지 않는 이유를 묻는 〈표 22〉에 따르면 46.9%가 퇴비화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하였고, 응답자의 26.1%가 퇴비를 만들어 볼 생각을 하지 안했다고 했으며, 12.7%는 만들만한 공간이 없고 10.3%는 만들어도 쓸 곳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 항목은 한편으로 퇴비공법에 대한 자료개발 및 홍보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퇴비화를 위해 공간부족등의 저해요인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퇴비를 만들어 낸 다음 사용방법 및 사용처개발이 또한 필요로 하겠다.

〈표 23〉은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에 대한 주민참여도의 응답결과다. 이에 따르면 44.5%가 참여하겠다, 34.1%가 고려하겠다, 그리고 15.8%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나타났다. 퇴비화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비교적 높아 홍보활동을 통해 퇴비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21〉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에 대한 경험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없 다	718	86.3
있 다	114	13.7
합 계	832	100.0

〈표 23〉 음식물 퇴비화에 대한 주민 참여도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적극 참여	131	15.8
참 여	369	44.5
고 려	283	34.2
별로 생각 없다	46	5.5
합 계	829	100.0

〈표 22〉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이유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	313	46.9
만드는 것이 귀찮다	26	3.9
만들만한 공간이 없다	85	12.7
만들어도 쓸 곳이 없다	69	10.2
아직 만들어 볼 생각을 안했다	174	26.1
합 계	667	100.0

〈표 24〉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왜 퇴비로 만들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쓰레기 감량화 효과(37.5%)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36.8%)라고 답변하였고 반면 꽃이나 농작물

을 기르기 위해서는 3.9%로서 퇴비용도에 대한 주민 의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음식물 퇴비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쓰레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	263	37.5
쓰레기 처리에 좋기 때문	48	6.8
깨끗한 환경을 기키기 위하여	258	36.8
자원 재활용 때문	105	15.0
꽃이나 농작물을 기르기 위하여	27	3.9
합 계	701	100.0

퇴비를 만드는데 필요한 조치(중복·다답)에 대한 조사 〈표 25〉에서는 퇴비화에 대한 의식 교육, 퇴비화 방법의 소개 및 교육, 퇴비통 보급과 퇴비장 건설은 각각 58.0%, 45.7%, 45.2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식교육을 위한 홍보를 하여야 하고 적절한 자료를 개발하여야 하겠다.

〈표 25〉 퇴비에 필요한 조치(중복·다답)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퇴비화를 위한 의식 교육 실시	489	58.0
퇴비화 방법의 소개 및 교육	385	45.7
퇴비화 방법의 소개자료 및 개발 보급	326	28.7
각가정에 퇴비통 보급이나 마을 공동 퇴비장 건설	381	45.2
각자 만든 퇴비의 사용지나 판매처 확보	165	19.6
큰 기업체에서 대규모로 퇴비를 생산, 판매하도록 정부지원	245	29.1
학교에서부터 퇴비를 만드는 간단한 교육실시	300	36.5
정부가 법이나 제도로 조치	151	17.9

(7) 퇴비통의 설치

소규모 퇴비통(직경 50cm, 높이 1m정도) 설치공간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7.1%는 설치공간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를 주거 형태별로 세분하여 보면 〈표 26〉과 같다. 퇴비통 설치를 위해 단독주택의 경우 공간적 여유가 있다 27.3%, 아파트의 경우 46.9%로 나타나 아파트에 설치공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퇴비화를 위해 공동 퇴비통이나 소규모 퇴비장 설치할 경우 응답자의 50.9%는 참여하겠다고 그리고 30.2%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혀 주민 참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참여도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볼때 적극참여와 참여의 경우 중소도시와 대도시는 읍면보다 약 2배의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표 26〉 주거형태에 따른 소규모 퇴비통 설치공간 여부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고급빌라	상 가	합 계
없 다	응답자수(명)	214	152	65	4	34	469
	구성비(%)	45.6	32.4	13.9	0.9	7.2	57.1
있 다	응답자수(명)	96	165	67	4	20	282
	구성비(%)	27.3	46.9	19.0	1.1	5.7	42.9

〈표 27〉 공동 퇴비통이나 소규모 퇴비장 설치시 주민참여도

구 분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 도시
적극활용	응답자수(명)	52	99	99
	구성비(%)	19.8	37.7	37.6
참 여	응답자수(명)	87	183	153
	구성비(%)	19.6	41.2	34.5
고 려	응답자수(명)	27	69	46
	구성비(%)	18.8	48.0	32.0
반 대	응답자수(명)	7	5	4
	구성비(%)	38.9	29.8	22.3
적극반대	응답자수(명)	1		2
	구성비(%)	33.3		66.6

공동으로 만들어진 퇴비 용도 및 이용방법에 대한 조사에 대한 〈표 28〉에서는 공동화단이나 주변 녹지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높았다.(81.0%) 또한 퇴비화에 참여한 가정에 무상으로 나눠주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12.2%로 나타났다.

〈표 28〉 공동으로 만든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사용방안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참여한 가정에 무상으로 나눠준다	105	12.2
공동화단이나 주변 녹지에 사용한다	698	81.0
아무렇게 해도 관계없다	53	6.1
기 타	6	0.7
합 계	862	100.0

〈표 29〉은 퇴비통 설치반대의 이유를 보여준다. 가장 큰 이유는 더럽고 냄새가 나기 때문이고(56.3%), 설치장소의 부족(21.4%) 그리고 설치해도 효과가 없다(20.3%)로 조사되었다.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주민이 읍면지역주민

보다 2배이상 퇴비통 설치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설치장소가 없다는 항목의 경우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공간적 여유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설치공간부족을 주거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아파트→ 단독→ 연립다세대

→ 상가→ 고급빌라→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별에 따른 조사에서는 더럽고 악취때문에 반대
 한다는 순위는 고졸→ 대졸→ 중졸→ 대중퇴→

국졸이다. 퇴비통 설치하여도 효과가 없다고
 믿는 순위는 고졸→ 중졸→ 대졸→ 국졸로 나
 타났다.

〈표 29〉 퇴비통 설치 반대 이유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더럽고 냄새가 난다	247	56.3
설치 장소가 없다	94	21.4
설치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89	20.2
기 타	9	2.1
합 계	439	100.0

(8) 음식물퇴비화에 대한 홍보자료

〈표 30〉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홍
 보자료를 받아 본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을
 보여준다. 이 문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93.1
 %) 받아 본적이 없다고 답변하여 홍보자료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다라는 응답자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볼
 때 읍면지역보다 중소도시와 대도시주민이 더
 높았다.

〈표 30〉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에 대한
 홍보자료를 받아 보았는가?

구 분	응답자수(명)	구성비(%)
없 다	814	93.1
있 다	60	6.9
합 계	874	100.0

IV. 요약 및 결론

음식물 퇴비화에 대한 이번 조사 결과는 다
 음과 같이 요약 및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1)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을 매우
 높게 보았다. 가정의 경우 일일 음식물
 쓰레기 200~500g을 배출하는 가정이 가

장 많았고 음식점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10kg이하 배출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하였
 다.

- 2) 음식물 쓰레기발생 주요 원인이 일회용
 사용증가와 음식물이 아깝다는 생각이 사
 라진다고 응답결과가 나와 무분별한 소비
 형 생활양식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 3) 음식물 쓰레기에는 음식물보다 음식물 포
 장재등이 함께 섞여져 있어, 주방 쓰레기
 는 분리하여 버려지지 않고 있음이 나타
 났다. 음식물 재활용을 위해서 발생원에
 서 부터 철저한 분리가 요구된다.
- 4) 음식물 분리처리의 미흡한 원인으로서는 의
 식부족과 교육부족이 지적되어 폭넓은 홍
 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 5) 가정의 외식빈도는 일반적으로 높지 않으
 며, 외식을 할 경우 필요 이상 더 주문하
 지 않은 것으로 응답결과가 나왔다. 반면
 손님을 초대할 경우 대체적으로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 6)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이 쓰레기통에 버
 려지고 가축사료로 사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 7)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위해 우선 식품의
 포장지나 1회용품을 줄여야 하고,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하며 또한 퇴비화 사료화

의 필요성 등의 순위로 조사되었다.

- 8) 음식물 퇴비화로 인해 얻은 이점이 화훼나 농작물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기 보다 감량화와 환경개선에 있다고 하였다.
- 9) 가정에 퇴비통 설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형태별로 보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설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협소한 공간은 퇴비통 설치장해요인이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음식쓰레기가 더럽고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악취제거 기술이 평행되어야 한다.
- 10) 공동퇴비통 설치 또는 소규모 퇴비장 설치를 할 경우 주민참여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응답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생산된 퇴비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공동화단이나 주변녹지에 사용하는데 찬성하였다.
- 11) 조사결과 퇴비화를 위한 조치로 의식교육과 퇴비화 기술보급등이 요구되어 홍

보 및 교육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는 홍보 자료를 받아 본적이 없어 홍보자료의 보급이 절실히 필요로 하다.

〈참고 문헌〉

이승부, 1994,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할 것인가?”, 1994년 「음식물 쓰레기 완전분리의 해」 기념 세미나.

강성린, 1993, 「가정음식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3-12, 한국소비자 보호원.

정제춘, 이무춘, 1993,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관한 의식조사”, 「환경교육」 5권, 한국환경교육학회, 1993.12, pp.62~70

〈Abstract〉

Citizen's Attitude to the Food Waste Composting.

Mu-Choon Lee(Sangmyung Women's University),
 Jae-Chun Chung(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itizen's attitude to the food waste composting as a mean of municipal solid waste recycling. Approximately 9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Seoul, Kangwon province and some other provinces. Most of people recognized that the composting of food waste is necessary for organic waste recycling minimization. Also, they think that a systematic education for domestic waste composting is required. They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basis small scale facility composting.